인간승리 화천기공을 찾아서 ⑭

청와대 노사대표회의 참석과 희망의 빛

△화천기공 하남공단 전경(1989)

대통령은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얘기를 꺼냈다.

"지금 우리 화천은 계속된 경기 침 체로 인해 제품이 생산만 되고 있을 뿐, 국내 수요가 감소되어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채 재고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직원들의 봉급을 3개월 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하, 지금 이 회의를 끝내고 청와대를 나서는 순간 우리 화천은 부도가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가지라도 남을 도왔으면 도왔지 못 살게 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선 일이라면 돕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의 화천이 이처럼 어렵게 된 것은 첫째는 최고 책임자인 제 자신의 무능으로 돌려야 하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제 능력에 넘어 따라가다가 이렇게 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저희의 어려움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자금사정이 약간 어려울 뿐 경기만 돌아선다면 금방이라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도 살고 기업도 살릴 수 있겠습니다."

평소 말주변이 없기로 소문난 나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어디서 이같은 말들이 술술 나오는지 나 자신도 놀라웠다. 내 말을 듣고 난 대통령은 "영감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비서관을 한번 쳐다보는 것이었다.

내 뒤를 이어 이준 노조위원장이 다음 말을 이었다. 그는 '지난 2개월 동안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고 불황 탓에 보너스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여건을 노조원 모두가 훤하게 알고 있으며 더욱이 기업주가 빼돌린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말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려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와 "회장님, 나가셔서 상공부 장관을 한번 만나보십시오."라고 귓속말을 전해 주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그는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서 순직한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나는 그가 일러준 대로 다음 날 상공부로 갔다. 당시 상공부 장관 역시 나중에 아웅산에서 순직한 서석준 씨였다. 마침 서 장관은 출타 중이었고 대신 차관보가 나를 맞아 주었다. 내 설명을 듣고 난 차관보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으니 다시 청와대로 가서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을 만나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이기주 상무를 대동하고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광주 하남공단 준공식

내가 처음 대해본 김재익 경제수석은 성격이 차분하면서도 일을 찾아 밀어붙이는 데는 매우 날카롭고 신념에 차있는 분처럼 보였다. 그는 우리 일행이 마음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사무실 분위기를 잡아 주었다.

내 설명을 듣고 난 김수석은 내 손목을 굳게 잡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감님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정부가 찾아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영감님께서 하고 계시는 공작기계 산업이야말로 국가가 앞장서 지원해 주고 육성해야 될 분야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큼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터이니 아무 염려 마시고 사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석은 이어서 화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 내역서와 시기 등을 적어 오라고 말했다.

당시 화천의 부채 총액은 3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었다. 조흥은행에서 빌려 쓴 150억 원과 산업은행의 100억 원, 광주은행을 비롯한 투자금융의 30억 원, 그리고 사채가 17억 원 등이었다. 회사 간부들이 밤을 새워가며 부채 총액 규모와 당장 시급한 자금으로 34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는 자금지원 계획서, 그리고 이에 따른 회사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었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던 화천금속을 화천기공에 합병시키고 KNFC(한국파나주식회사)의 지분을 코오롱 그룹에 매각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나는 이걸 들고 다시 청와대로 올라가 김재익 경제수석을 만났다. 김 경제수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줄을 그어가며 다 읽더니 서석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화천을 도와주도록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재무부와 화천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조흥은행 행장에게까지 수화기를 들고 '모든 사항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 화천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줄 것' 을 당부해 주었다.

김 경제수석이 약속한 긴급자금 34억 원의 지원은 쉽게 이루어졌다. 이 돈은 그동안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주고 악성사채와 은행의 연체이자를 갚는데 요긴하게 쓰였다. 당시만 해도 34억 원이란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흘도 되지 않아 오간 데가 없었다.

(다음호에 계속)

槐雲 칼럼

일본의 혐한(嫌韓)기류 심각하다

▣ 槐雲 權 海 兆 (한국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최근 일본의 혐한(嫌韓)기류가 심각하다. 계속적인 극우단체들의 혐한시위에 이어 정치가, 주요언론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 서점에는 민족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자극적인 제목의 서적들이 무수히 진열되고 지하철 서적광고판은 마치 전쟁 전야처럼 선동문구로 가득 차있다. 이는 아베정권 시작부터 특히 작년 12월 아베 내각 2기부터 더욱 심각하다.

아베수상은 일본 우익단체의 극우대본영(大本營)으로 불리는 일본회의 특별최고고문을 맡고 있다. 일본회의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여 다시 동아시아 패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표로 뭉친 일본우익세력의 사령탑이다. 일본회의는 1977년 개헌과 핵무장을 주장하는 보수인사들로 집결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와 신도(神道)계 종교단체 모임인 '일본을 지키는 모임' 이 통합하여 만들어 졌다. 일본의회에도 일본회의와 뜻을 같이한 '일본 간담회' 를 조직하여 아베2기 내각 구성원의 80%와 각료 19명 중 15명이 간담회 소속이다.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시위는 지난 3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반한시위는 극우단체인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국적, 인종, 종교, 성차별 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가 시주도하여 작년에는 도쿄주재 한국인을 상대로 인종모욕언어를 사용하며 연쇄시위를 벌렸으며 "다케시마(독도)반환요구에서 '한국인은 해충이다 살충제로 없애자, 한국인을 죽이자' 등의 민족차별로 격화되고 있다. 지금은 야쿠자와 연계된 폭력우익, 학생우익, 종교우익, 인터넷우익까지 가담한 우익극단주의자들의 총체적인 혐한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이들의 항의 협박으로 홋카이도 사루후쓰(猿拂) 마을의 한반도 강제징용 피해자 추모비 건립도 중단되었고, 군마현 다카사키(高崎)시 '군마의 숲' 에 있는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추도비 설치갱신도 불허하였다. 일본정부도 도서관의 '안네일기' 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도 방관하고 있다.

특히 혐한 서적들도 난무하고 있다. 90년대 박태혁이란 가명으로 쓴 '추한한국인' 이 혐한분위기를 몰고 오드니 2005년 만화 혐한류(嫌韓流) 시리즈가 100만부 이상 판매에 이어 최근 재특회(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의 대표 시쿠라이 미코트가 쓴 대혐한시대(大嫌韓時代)가 베스트셀러 1위가 되고 있다. 일본잡지 격론(激論) 7월호에는 '침몰국가 한국, 침략국가 중국' 이란 재목으로 한국인은 거짓말 장이라 기술하고 있고, 주간문춘(週刊文春) 7월 17일자에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하였다. 논객 모로다니 기쓰미(室谷克實)가 쓴 매한론(呆韓論)과 악한론(惡韓論)은 20만부 이상 판매되었고, 새로운 혐한 시리즈 '한국은 00 민족' 을 곧 출간예정이라 한다.

특히 극우 언론지 산케이 신문(産經)新聞)은 한국의 역사인식과 종군위안부문제에 응수하여 매한(呆韓), 치한(恥韓), 우한(愚韓), 악한(惡韓), 비한(悲韓), 범한(犯韓), 침한(沈韓) 등의 한국 저주어(詛呪語)을 만들어 기획시리즈로 올해 초부터 전면 또는 5단광고로 반한선동 추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토야스야(加藤達也) 전 서울 지국장도 혐한. 반한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번 세월호 침몰당일 박대통령행적에 대한 허위보도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도 박대통령의 '고자질 외교' 로 폄하하였고, 6월에 '위안부는 죽어도 여전히 대일 역사전의 전사로 떠받들어져 반일(反日)의 도구로' 란 기사와 월간정론(正論) 9월호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성 착취 대국' 이라 기고했다. 이같이 산케이신문은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증오범죄(憎惡犯罪: hate crime)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 우익언론들은 아사히(朝日)신문이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과 위안부 실태를 적극적 보도했다는 이유로 아사히신문 불매운동과 광고 중단, 아사히기자와 가족까지 무차별테러협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사히의 위안부 보도는 허위라는 내용을 담은 책까지 만들었으며, 주간문춘, 주간신조(週刊新潮) 등은 아사히에 대해 국적(國敵). 매국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공격하고 있다. 또한 아사히신문의 위안부 특집을 다룬 한국 언론보도를 옹호, 추수(追隨: 비판 없이 뒤를 따른다는 뜻)란 표현으로 비난하고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의 반한시위나 언론 논평, 혐한 서적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 지우기에 결부되어있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며 일본침략은 정당했다. 위안부의 강제동원은 결코 없었으며, 일본이 전쟁을 해주어 감사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을 방치하면 일본이 전쟁을 발생한다. 한국과 제일동포는 반일국가, 반동분자로 이들과 상종 말고 아시아에서 결별하고 한국과 단교해야 한다' 는 등 해괴망측한 주장들과 특히 일본사전에 실린 종군 위안부 뜻까지 수정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위안부 문제는 세계가 인권차원에서 보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미국 페이페이 추 박사가 2차 대전 당시 중국여성 5만-20만 명이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사진과 하며 폭로하였고, 29일 일본을 방문한 빌범 알랙산더러 네덜란드국왕도 '선조가 남긴 자랑스러운 역사도 아픈 역사도 모두 계승해야한다' 며 민간여성의 위안부강제동원을 지적하였다. 2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전쟁의 죄를 잊으라는 일본의 압력' 아리는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여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를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반한단체 시위가 격심하자 '반한시위척결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 시작되었고 세계적 소설가 하루키(村上春樹) 등 지식인들도 전쟁책임을 부인하는 일본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박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내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출발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일본정치인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지난 8월 유흥수 주일대사 부임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개선을 기대했으나 아직 진척이 없다. 일본이 지난 7월 요이치 도쿄지사에 이어, 9월 모리 (森喜朗) 전총리가 방한하여 '가을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고, 10월 20일 국가안전보장회(NSC)사무국장 야치(谷內正太郎)와 25일 누카가 (額賀福志郎)한일의원 연맹회장이 방한하여 11월 베이징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기간에 한일정상회담을 타진했으나 일본의 위안부문제 진전성이 보이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는 오랫동안 우호관계도 있었지만 앙숙의 불편한 관계도 많았다. 이제 한일양국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고 다양한 접촉과 조속한 정상회담 실시하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잘못된 자유와 평등

▣ 권 중 달 (중앙대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위진시대에는 불교의 해탈사상이 들어와서 크게 유행하였다. 해탈이란 세상에서 모든 나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한다. 이 사상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대자유였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람은 얽어 매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똑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자유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폭력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한 남조 송(宋)나라 시대에 황제에 올랐다가 쫓겨난 폐제(廢帝) 유자업의 누이 이야기다. 유자업에게는 유초옥(劉楚玉)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산음(山陰)에 사는 부마도위(駙馬都尉) 하집(何戢)에게 출가하여서 산음공주라고 불리었다. 하씨 집안은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 유집의 아버지는 금자광록대부였고, 그의 할아버지는 사공을 지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유초옥은 이 자유를 자기 멋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 같다. 어느 날 친정인 황궁에 와 보니, 황제가 된 자기의 남동생 유자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다.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였고, 때리고 싶으면 때렸다. 그래서 한번은 궁궐에는 많은 여인들을 들여와서 멋대로 놀았다. 한번은 궁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모아 놓았다. 그 가운데는 황제의 여동생들도 있었고, 숙모들도 있었다.

그래 놓고 해괴하게 궁중에 있는 남자들로 하여금 그녀들을 멋대로 욕을 보이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이었다. 이것을 유자업은 자기의 대 자유라고 생각하였겠지만 자기 자신을 규제할 줄 모르는 자유는 방종이었던 것이다.

유초옥은 이러한 동생의 대자유(?)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동생에게 말하였다. "첩(妾)과 폐하는 남자와 여자여서 비록 다르지만 함께 먼저 돌아가신 황제에게서 몸을 의탁하여 낳았습니다. 폐하께서는 육궁(六宮)에 있는 궁녀가 1만여 명을 헤아리나 첩은 오직 부마 한 명이니 일이 아주 공평하지 못합니다." 첩은 산음공주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육궁이란 황제의 후궁들이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요컨대 유초옥은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은 불공평하니 나도 동생처럼 많은 남편을 데리고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남동생과 평등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었다.

요즈음에도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람이 누구에게 얽어 매여 사는 것은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자 한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지켜 줄줄 알아야 하고, 또 능력과 업적도 비등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맞추지 못하고서 계속하여 자유와 평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유초옥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가만히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 권력과 돈이 없어서 못할 뿐 권력과 돈만 있으면 유초옥처럼 행동할 사람이 한 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각설하고, 유촉옥의 이 요구를 들은 황제 유자업 또한 유초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래 누이 말이 맞소.' 라고 하면서 즉각 궁중에 있는 젊은 남자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 면수(面首) 30명을 뽑아서 누이에게 주었다. 면수란 얼굴과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사람을 말한다. 이들 면수 30명은 졸지에 산음공주의 성적 노리개가 된 셈이었다. 그런데 이 30명 가운데 들어 있던 이부랑(吏部郞) 저연(褚淵)이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목숨을 걸고 저항하여 겨우 벗어났다.

좋은 생각과 행동도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부작용이 아주 크다. 요즈음 세태 속에는 서양의 자유와 평등을 잘 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니지 하는 생각은 나의 노파심 때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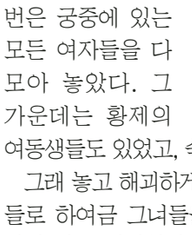
(다음호에 계속)

別世

原任, 大邱 權寧宅 옹 別世

前, 능봉양소수임을 역임한 대구시 동촌동(유방APT 113동1205호) 거주한 原任 권영택 옹이 지난 11월 6일 오전 4시 20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옹은 항상 인자한 성품으로 여러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며 복양공파 15世 醴泉君(휘 秀容) 종회장을 지냈으며, 문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난 11월 8일 많은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3일장으로 경북 예천군 풍양면 흔효리 선영에 안장했다.

유자녀로는 △장남(五洙)△차남(오흥·경산종친회장·경북치과의사협회장)△삼남(오상)△딸(갑희)를 두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본지(2014년 11월 1일 제473호 2면)에 「천진암성지 추진사업에 크게 기여 권현훈 회장」을 권혁훈 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임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총재단회비

△권재혁(부총재)	100만원
△권인탑(부총재)	100만원
△권영한(부총재)	100만원
△권용일(부총재)	100만원
△권홍사(부총재)	100만원
△권무탁(부총재)	100만원
△권오수(부총재)	100만원
△권희필(부총재)	100만원
△권봉도(부총재)	100만원
△권오영(부총재)	100만원
△권재주(부총재)	50만원
△권용기(부총재)	100만원
소 계	1,150만원

▣ 종무위원회비

△권중원(부산, 복야공파)	20만원
△권영조(안동, 동정공파)	20만원
△권영무(영주, 복야공파)	20만원
△권윤성(안동, 중윤공파)	20만원
△권중덕(안동, 호장공파)	20만원
△권중달(포항, 부정공파)	20만원
△권영갑(수원, 대종원)	20만원
△권보근(김포, 대종원)	20만원
△권태갑(대구, 대종원)	20만원
△권혁길(강릉, 복야공파)	20만원
△권혁수(안동, 별장공파)	20만원
△권오탁(안동, 정조공파)	20만원
△권대길(구미, 대종원)	20만원
△권기갑(이천, 복야공파)	20만원
△권태석(창원, 동정공파)	20만원
△권병선(서울, 추밀공파)	20만원
△권기덕(안동, 별장공파)	20만원
△권영화(안동, 복야공파)	20만원
△권성일(대구, 검교공파)	20만원
△권기원(안동, 별장공파)	20만원
△권박원(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희철(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동섭(안동, 복야공파)	20만원
△권오길(김천, 좌윤공파)	20만원
△권호준(대전, 추밀공파)	20만원
△권오열(의성, 복야공파)	20만원
△권기웅(문경, 부정공파)	20만원
△권태원(안동, 동정공파)	20만원
△권기호(안동, 대종원)	20만원
△권기홍(문경, 군기감공파회장)	10만원
소 계	590만원

▣ 대의원회비

△권흥식(의성, 부정공파)	10만원
△권오정(예천, 대종원)	10만원
△권두현(수원, 대종원)	10만원
△권오수(안동, 대종원)	10만원
△권영걸(인천, 추밀공파)	10만원
△권희중(성남, 추밀공파)	10만원
△권 창(시흥, 추밀공파)	10만원
△권정수(부산, 복야공파)	10만원
△권혁용(서울, 대종원)	10만원
△권영목(안동, 동정공파)	10만원
△권혁준(용인, 추밀공파)	10만원
△권돈원(대전, 추밀공파)	10만원
△권오학(양천, 복야공파)	10만원
△권상현(전남, 추밀공파)	10만원
△권영락(문경, 군기감공파)	10만원
△권태용(울산, 복야공파)	10만원
소 계	160만원

▣ 찬조금

△권오수(대구) 10만원

합 계 1,910만원